



2025년도 정기총회 개최

본회(회장 권영걸)는 지난 6월 26일 '2025년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 및 사단법인 에스아트플랫폼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올해도 '즐거움 총회'를 표방해 미술여행 일정중 충청북도 공주시 카페버치에서 개최된 이날 총회에는 본회 권영걸(에스아트플랫폼 이사장) 회장을 비롯해 이종복 감사와 상임부회장단, 부회장 등과 (사)에스아트플랫폼 김소선 감사, 상임이사, 이사진 등 양 기관의 임원 및 회원이 참석했다. 권영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본회와 (사)에스아트플랫폼의 운영에 힘써온 임직원들에 대한 격려와 함께 회원들의 활발



한 참여를 독려했다. 박도현(16디자인) 차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박도현 차장의 '현황보고'에 이어 민수정(82회화) 사무국장의 '2024년도 사업보

고', 이민주(76회화) 상임부회장의 '2025년도 사업계획', 황현수(74조소) 상임부회장의 '2024년도 회계보고', 이종복(62응미). 김소선(63조소) 감사의 감사보고, '2024년도 사업 및 2025년도 사업계획 승인', '기타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2024년도 사업보고에서는 지난 해 진행한 행사 및 사업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홈페이지 및 아카이브 개편', '온라인사업', 'MOU 체결', '미술여행', '후원회추진위 발족', '미술아카데미 개설', '장학금지급 등 모교지원', '청소년미술대전 후원', '서울대총동창회캘린더 작품선정' 등의 사업에 대해 보고했다.

다음으로 이어진 전시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해 갤러리Pal, 아트스페이스 쉼리 아 등 MOU체결 갤러리와 한전갤러리에서 총 13개의 전시를 진행했다고 보고했다. 이어진 2025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2025 빌라다르 및 베리타스미술상전' 등 총 7개의 전시와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될 예정임을 보고했다. 이종복(◀사진) 감사는 감사보고를 통해 "2024년에서 25년에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힘든 시기였음에도 많은 행사를 진행하여 마치 미대의 르네상스를 맞이한 듯한 성과를 얻어내 조용히 고생해왔음을 보여주었다. 동창회가 점점 끈끈한 신뢰와 따뜻한 사랑으로 뭉쳐져 나갈 것을 크게 기대하며, 더욱 굳게 뭉친 빛나는 서울대미대동창회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총평했으며, (사)에스아트플랫폼 김소선(◀사진) 감사는 감사보고를 통해 "2024년도의 사업과 회계를 감사한 결과 제반 사항이 잘 진행되었기에 이에 보고한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총평했다.





백제미술여행

본회는 지난 6월 26일부터 27일까지 1박 2일간 충청남도 공주와 부여 일대에서 '백제미술여행'을 개최했다. '백제의 숨결을 따라-부여, 공주 1박2일'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미술여행은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유적 및 박물관 탐방을 통해 백제미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동문간의 친목도모를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이번 여행에는 동문외에도 모교 재학생 김세은(23서양), 김윤이(23서양) 학생과 본회 미술아카데미 이선옥(69간호), 류은자(석14도시환경디자인) 수강생과 지인 등도 함께 참여했다.



첫째날 아침 압구정428공영주차장에 모인 일행은 반가운 인사를 나눈 후 여행에 대한 기대감을 안은 채 전세버스를 이용해 두시간만에 공주에 도착했다.



다. 식사가 끝날즈음 화성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안필연(78조소) 동문이 준비해온 술과 안주를 제공하면서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여행의 시간으로 이어졌다. 김홍규 상임부회장과 임영선 부회장의 사회로 권회장을 비롯해 모든 동문들이 각자의 소감을 얘기하고 한마음이 되어 노래도 부르는 등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한 시간여 뜻 깊은 자리를 가진 뒤에 일행은 숙소인 공주잉크호텔로 이동하여 여장을 풀었다.



둘째 날 호텔에서 조식뷔페로 아침식사를 마친 뒤 부여로 출발해 국립부여박물관을 방문했다. 부여는 사비백제의 왕도로서 수많은 백제의 문화유산들이 출토된 곳이다. 박물관에는 백제금동대향로를 포함한 백제의 문화유산과 충남 서부지역의 선사 문화를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유물들이 전시되어있었으며 디지털 실감 영상관에서 신기술융합콘텐츠를 즐길 수 있었다. 또한 한국의 전통적인 툇마루와 평상을 구현한 디지털 휴게공간인 <백제를 실감하다>에서 건물 밖 석조 정원의 풍경과 함께 백제의 문양을 활용한 감각적인 디지털 영상을 바라보며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시간이 이어졌다. 식사후에는 정림사지로 이동해 5층 석탑과 석조여래좌상을 감상하고 박물관을 탐방했다. 정림사지 5층 석탑은 간결하면서도 정제



된 미감을 지닌 백제 석탑의 대표작으로, 그 균형감과 세월의 흔적 속에서 고대 백제인의 미의식을 느낄 수 있었다.

이어 장맛비 예보와는 달리 화창한 날씨 덕분에 구드레나루터로 이동하여 백마강을 따라 운항하는 황포돛단배를 타고 고란사까지 향했다. 유유히 흐르는 강 위에서 바라본 낙화암과 주변 풍경은 사뭇 고즈넉하고, 백제의 옛 이야기를 상상하게 하는 감성적인 시간이었다. 일부는 고란사를 방문해 고란약수와 고란초에 얹힌 전설을 들으며 약수를 시음하기도 했고, 몇몇은 낙화



암에 올라 강물 너머로 펼쳐진 풍경을 감상하며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감정의 순간을 누렸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는 예정에 없던 입장포도휴게소에 들러 한시간의 티타임을 갖고 아쉬움을 달랜 후에 여행일정을 마쳤다.

본회는 우리나라 고대문화의 정수인 백제 미술과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예술적 영감을 얻는 동시에 동문 간의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한 이번 백제미술여행의 의미를 더욱 확장하기 위해 오는 12월 2일부터 13일까지 갤러리 Pal에서 백제미술여행의 성과를 담은 전시회를 개최해, 여행을 통해 얻은 영감과 감동을 각자의 작품으로 승화시켜, 백제 문화의 아름다움과 그 시대의 정서를 현대적인 언어로 새롭게 보여줄 계획이다.



소확행아트컬렉션 개최

본회는 BC카드(대표이사 최원석)의 후원으로 '2025여름 소확행아트컬렉션'을 오는 7월 25일부터 7월 31일까지 BC카드 본사가 있는 을지로4가 을지트윈스 빌딩 2층 로비갤러리에서 개최한다. 이번이 다섯 번째인 소확행아트컬렉션은 시민들에게 적은투자로 작품을 소장할 수있는 행복을 드리면서 동문작가들의 창작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판매위주의 전시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프레스코 원데이클래스 수강안내

본회 S-미술아카데미가 지난 7월 실시한 프레스코 원데이클래스(강사 선우형)가 많은 호응으로 8월 2일 1회 더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강의일시 : 8월 2일(토) 10-17시(점심휴식 1시간)

강의장소 : S-미술아카데미 실기실(서울종로구인사동9길 16 백악미술관 2층)

수강정원 : 15명(선착순 접수)

수 강 료 : 15만원(재료비포함)

접수기간 : 7월 22일(화)까지

접수방법 : 문자접수(010-8605-8065) 및 수강료 입금

납부계좌 : 농협 301-0252-4434-51 권영걸(서울대미대동창회)

회장동정



줄리어드 음대학장 간담회

본회 권영걸(서울예고 교장) 회장은 지난 6월 5일 미국 줄리어드 음악대학의 데이비드 써킨 루드윅 학장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미술, 음악, 무용을 망라하는 예술교육의 시에 의한 새로운 격변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의 정신과 문화 알리기회 간담회

지난 6월 12일 진영선(64회화) 고려대학교 조형대학 명예교수, 송혜경 한국의 정신과 문화 알리기회 상임이사와 간담회를 갖고, 우리나라의 조형예술에서 누락되고 간과해온 민족 전통문화 속의 지혜와 세계성을 천착하여, 조형예술교육의 정체성 확립과 뿌리 찾기의 필요성에 대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나가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국제문화플랫폼 컬처마스터즈 간담회

지난 7월 4일 황인혜(65회화) 동문, 박성용 UNESCO 아태지역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아시아와 한국의 무형문화요소들의 발굴과 장인 공동체 및 청년 세대를 연결하는 국제문화플랫폼인 <컬처마스터즈 (Culture Masters)>에 대한 설명을 듣고, 모교 동문들의 문화유산 관련 국제정책자문 및 연구활동 동참을 요청받았다.



여름특강 미술실기강좌

본회 S-미술아카데미는 지난 7월 4일부터 오는 8월 29일까지 8주에 걸쳐 여름특강 미술실기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본회 산하 (사)에스아트플랫폼이 주관하고 서울대총동창회가 후원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프리페인팅'(강사 조명식), '기초소묘드로잉'(강사 김호준), '태블릿PC 디지털페인팅-기초부터 작품 제작까지'(강사 이영훈), '여백과 묵향의 힐링-사군자'(강사 변영혜), '수채화'(강사 박혜령), '현대수묵화'(강사 조래원), '초·중등 영재미술'(강사 박진하), '프레스코 원데이클래스'(강사 선우향) 등 8개 강좌로 구성됐다. 모든 강좌는 오랜 시간 실전 경험과 교육경력을 쌓아온 모교 출신 강사들이 수강생의 수준과 필요에 맞춰 개별 지도를 한다. 개인의 실력에 맞춘 실기와 이론수업을 병행하여 수강생들이 작품을 제작하고 발표하도록 구성했다.

강좌안내: 서울대미대동창회 홈페이지: <https://www.snuarta.or.kr/>

수강문의: 02-877-8065(평일10~17시) 문자신청: 010-8605-8065

모교소식



인도네시아 요가카르타예술대 강연

서울대학교 미술대학(학장 정의철)은 인도네시아 요가카르타예술대학교(ISI Yogyakarta)와 공동주최로 공개 강연을 개최했다. '인공지능 시대 예술적 창작: 한국 예술 학교의 관점과 적응'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연은 AI 시대를 맞이한 예술 교육의 방향성과 과제를 다뤘다. AI 시대에 맞서는 대한민국의 예술 교육 접근 방식은 물론, 대학이 이 시대에 어떻게 적응하고 혁신하는지, 예술적 가치 기반 교육과정과 학습 생태계를 어떻게 설계하고 있는지 검토했다. 이번 행사는 두 대학 간 국제협력의 일환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 속에서 예술 분야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예술교육기관이 창의성과 기술을 어떻게 융합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연사로 모교 정의철 학장을 비롯해 조인호 부학장, 박제성 부학장, 민복기 교수, 이종건 조소과 학과장이 참여했다. 이들은 한국 예술교육의 전략과 현황, 그리고 AI 시대에 맞서는 예술가 양성의 실천적 방안들을 공유했다. 모교는 이번 강연을 통해 예술적 가치 기반의 교육과정과 미래형 학습 생태계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며, 국제적 연대를 강화했다.

2024학년도 후기졸업전 및 석박사 학위청구전



모교 2024학년도 후기(2025년 8월) 졸업전 및 석박사 학위청구전이 지난 6월 5일부터 29일까지 74동 우석갤러리와 101호 영상제작스튜디오에서 개최됐다. 6월 5일부터 8일까지 서양화과, 6월 12일부터 15일까지 동양화과의 전시가 열렸으며, 디자인과 및 영상매체예술은 오는 6월 19일부터 22일까지, 조소과 및 공예과는 오는 6월 26일부터 29일까지 전시가 진행되었다.

2025 1학기 과제전



모교 2025년도 1학기 과제전이 진행되었다. 학과별 전시는 지난 5월 말부터 6월 말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었으며, 각 전공의 특성과 개성을 살린 작품들이 모교 캠퍼스 전역의 전시 공간에 걸쳐 전시되었다. 디자인과 전시는 5월 30일부터 6월 26일까지 49동에서 개최되었으며, 서양화과는 6월 5일부터 8일까지, 동양화과는 6월 12일부터 15일까지 각각 50, 51, 52동 및 74동에서 작품을 전시했다. 공예과는 금속공예가 6월 18일부터 22일까지, 도자공예는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52동에서 열렸으며, 조소과는 6월 26일부터 29일까지 50, 51, 74동에서 전시를 진행했다. 1학년 과제전은 6월 19일부터 22일까지 50, 51, 52동에서 열려, 입학 후 처음으로 공개되는 작업들을 선보이는 자리로 관심을 모았다.



국제 디자인 워크숍

모교가 주관하는 국제디자인워크숍 'Cultural Code: Designing Identity Flags'가 지난 6월 24일, 25일 양일간 개최됐다. 본 워크숍은 서울과 샌프란시스코의 문화적 정체성을 주제로, 두 도시의 상징성과 감각을 그래픽 상징으로 재해석하는 과정을 담았다. 이번 워크숍은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 DAEKI & JUN의 공동 창립자이자 디자이너인 심대키가 진행했으며,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예술대학(CCA)의 서울 방문 학생들과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협업해 깃발을 제작했다. 작업 결과물은 지난 7월 10일부터 13일까지 미네소타에서 열린 샌프란시스코 아트북페어 기간 동안 전시됐으며, 이후 벨기에에서도 소개될 예정이다. 심대키 디자이너는 런던예술대학교 센트럴 세인트 마틴스에서 그래픽 디자인을, UCL에서 인류학을 전공한 후 국내외 디자인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그랑프리 등 100회 이상 수상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여러 대학에서 그래픽 디자인 교육과 전시 기획을 병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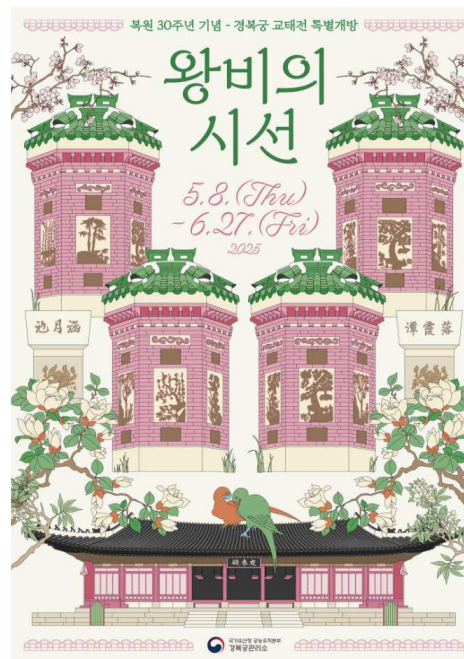
디자인과 특강

모교 디자인과가 주관하는 SNU 10-10 Project의 일환으로, 지난 6월 20일 두 편의 특강이 연이어 개최됐다. 이번 특강은 일본의 도시와 건축, 공간 개념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호리구치 토오루 교수의 『음영: 영화로 읽는 일본의 그림자 공간들』 강연은 다니자키 준이치로의 『음영예찬』을 바탕으로 일본 건축과 도시 공간에 나타나는 '그림자'의 의미를 국내외 영화 장면을 통해 살펴보고, '밝은 그림자'라는 개념을 조명했다. 한승욱 교수의 『교토: 도시공간의 역사성과 혁신성』 강연은 전통과 혁신이 공존하는 교토의 도시공간에 대한 사회학적 통찰을 공유했다.

우석갤러리 초청큐레이터 기획전 작가공모

모교 우석갤러리가 2025년 초청큐레이터 기획전 참여작가 공모를 진행한다. 초청큐레이터 기획전은 미술 현장에서 활동하는 큐레이터를 초청해 서울대 미대 구성원과 협업하는 전시로, 올해는 김제희 큐레이터가 참여한다. 김제희 큐레이터는 미술사와 미술경영을 전공하고, 《초식그림》, 《콘크리트 정원》, 《Ending, Fleeing Surviving》 등 다수의 전시를 기획해왔다. 현재는 국립현대미술관 전시과에서 학예원으로 재직 중이다. 공모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개별 인터뷰를 통해 진행되며, 선정된 작가는 전시에 참여하고 작업에 대한 큐레이터의 크리틱을 받을 수 있다. 우석갤러리는 이번 공모를 통해 예술적 실험과 협업을 지향하는 역량 있는 작가들을 발굴하고자 하며, 서울대 미대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미술품보존연구센터 부벽화모사도 전시



어졌다.

서울대학교 미술품보존연구센터가 지난해 제작한 두 점의 부벽화 모사도가 경복궁 교태전 특별개방 전시 '왕비의 시선'을 통해 다시 한 번 대중 앞에 공개되었다. 전시에는 사계화조도와 원후반도도가 교태전 대청에 설치되어 관람객이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사계화조도는 앵무새들의 다정한 모습을, 원후반도도는 어미 원숭이와 새끼들이 어우러진 평화로운 장면을 담고 있다. 두 작품은 조선 궁중회화의 섬세함과 상징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부벽화로, 이번 모사도를 통해 정교한 원형 복원이 이루어졌다.

서울대소식



김재철 명예회장 특별강연 및 총장과의 대담

서울대학교(총장 유홍림)는 지난 6월 4일 관악캠퍼스 중앙도서관 관정관에서 동원그룹 및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창업자이자, 한국 산업화 시대의 산증인이며 혁신의 아이콘으로 손꼽히는 김재철 명예회장을 초청해 총장과의 대담 및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인생의 파도를 넘는 법"을 주제로 진행된 강연에는 학생 및 교직원 15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번 강연은 김재철 명예회장의 경영 에세이 『인생의 파도를 넘는 법』의 출간을 기념하여 마련된 자리로, 원앙어선 실습 항해사에서 시작해 오늘날 동원그룹과 한국투자금융지주를 창립한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 여정을 통해 기업이 정신의 본질과 진정한 리더십의 가치가 공유되었다. 김재철 명예회장은 "꿈꾸는 동안에는 영원히 청년"이라는 말로 운을 떼며, 서울대 입학を 포기하고 바다로 향했던 과감한 결단, 목숨을 건 항해 속에서 다져진 사생관(死生觀), 원칙을 지킨 정도경영, 끊임없는 혁신과 리더십에 대한 통찰을 청중과 진솔하게 나누었다. 특히 그는 "호기심을 가지고 새롭게 도전하지 않으면 개인이든 사회든 쇠퇴하는 것은 인류 역사의 진리"라며, "곧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서울대 젊은이들에게 가슴 뛰는 도전을 멈추지 말기를 당부하고 싶었다"라고 전해 큰 울림을 자아냈다. 유홍림 총장은 "해양수산업의 불모지를 개척하고 금융산업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김재철 명예회장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의 교과서"라며, "이번 강연을 통해 미래세대가 도전과 혁신의 가치를 마음 깊이 새기고 자신의 길을 주체적으로 개척해 나가길 바란다"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서울시환경상 환경기술·경영부문 최우수상

서울대학교가 지난 6월 5일 서울시장에서 열린 서울특별시 주관 '2025 서울특별시 환경상 시상식'에서 환경기술·경영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국내 대학 최초로 ESG 검증보고서를 발간하고 탄소중립 캠퍼스 추진 기구를 설립하는 등 재난적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는 고등교육기관의 선도적 활동을 인정받은 결과이다. 서울대학교의 &환경기술·경영&부문 최우수상 수상에 대한 주요 공적 내용은 국내 대학 최초 ESG 검증보고서 발간, 국내 대학 최초 탄소중립 캠퍼스 추진단 설립 및 탄소중립 전환 노력 선도, 친환경 학생 활동 사업 지속 추진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성원들의 참여 문화 조성 및 지역사회 친환경 문화 확산, 온실가스·에너지 정보 체계적 수집 및 투명한 공개 등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담고 있다.

서울대캠퍼스타운 성과평가 A+등급

서울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단이 서울시가 주관한 '2024년 캠퍼스타운 성과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 등급을 획득했다. 본 평가는 서울시내 27개 대학을 대상으로 창업인재 양성, 창업기업 육성, 특화 창업, 지역 활성화 등 4개 부문에서 정량 및 정성 기준으로 이뤄졌으며, 서울대는 딥테크 중심 창업 생태계 조성 및 글로벌 연계 프로그램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시장상을 수상했다. 서울대는 R&D 사업화, 투자유치,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딥테크 기반 입주기업의 성장을 전방위로 지원하고 있다. 서울대는 글로벌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여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 사례를 공유하였다. 해외 시장 진출 지원, 현지 부트캠프, 비즈니스 매칭, 1:1 글로벌 멘토링 등을 통해 입주기업의 해외 진출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높인 점이 주목을 받았다. 지역사회와의 연계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관악구 관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로봇·AI 코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미래 창업인재 육성과 지역의 창업 문화 확산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달성한 사례로 평가받았다. 창업기업의 성과 또한 눈에 띈다. 서울대 캠퍼스타운사업단 입주 및 졸업기업의 생존율은 94.83%, 입주기업의 2024년 총매출은 약 158억 원, 투자유치 총액은 약 315억 원, 고용 창출은 360명에 달한다.



문화관 리모델링

문화관이 41년 만에 새롭게 단장한다. 1984년부터 관악캠퍼스 중심에서 서울대 구성원들의 문화와 예술 활동을 담아온 문화관(73동)은, 'SNU 커먼즈' 사업의 일환으로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리모델링 공사는 2024년 9월 본격화되었다. 특히 2024년 1월부터는 서울대 문화관 리모델링 모금 캠페인이 시작돼, 교내외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기존 대강당 중심의 단일 구조였던 문화관은 공연, 전시, 연구, 복지 기능을 두루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다. 대강당은 콘서트와 다목적 공연이 가능한 934석 규모로 새로 조성되며, 블랙박스, 다목적 홀, 가변형 갤러리, 카페테리아, 개방형 오피스 등 다양한 공간이 마련된다. 문화예술원은 이번 문화관 리모델링을 통해 캠퍼스 내 문화기반 시설을 통합·확장할 계획이다.

서울대미술관 <도상의 추상-세속의 길에서 추상하다>



서울대학교미술관(관장 심상용)에서 지난 6월 19일부터 오는 9월 14일까지 전시 <도상의 추상-세속의 길에서 추상하다>가 진행된다. '도상(途上)'의 추상은 이처럼 익숙해진 한국 추상의 문법에 과감한 질문을 던지는 전시다. 전시는 17명 작가들의 개별적인 탐색을 통해 '세속의 추상'이라는 주제를 다층적으로 구현한다. 김서올·김아라·박경률·박미나·박정혜·송은주·심우현·심혜린·안종대·양자주·이은경·이창원·이희준·조경재·조재영·차승언·최영빈 등 작가의 인장이 선명한 대표작 180여 점이 미술관에 모였다. 심상용 관장은 "'보이는 것 너머'는 언제나 '보이는 세계'와 밀착해 있으며 대개의 경우 정신(비물질)과 물질은 별반 다르지 않다"며 "현실에 발 붙인 추상 미술을 통해 눈에 보이는 한계를 넘어서는 진리를 감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동창회소식



모교발전을 위한 나눔골프대회

서울대학교총동창회(회장 김종섭) 주최 '모교 발전을 위한 나눔 골프대회'가 지난 5월 29일 경기도 여주 렉스필드 컨트리클럽에서 열렸다. 서울대 종합화 50주년을 기념하며 열린 이번 대회는 60년대 학번부터 막 졸업한 20대 동문까지 120여 명이 참가해 세대를 잇는 장이 됐다. 경기는 하광룡(60법학) 경기 위원장의 총괄로 시작됐고, 송우엽(79체교) 본회 사무총장의 진행으로 원활하게 진행됐다. 이철주(61회화) 동문은 이날 최연장자로 참석했다. "청춘인 줄 알고 왔는데 제일 나이가 많다고 하더라"며 웃으며, "건강해야 골프도 치고 모교를 위해 일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연소 참가자인 김민호(16조소) 동문은 "젊은 동문들도 부담 갖지 말고 자주 참여했으면 좋겠다" 말했다. 또한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 여유가 생기면 기부에도 참여하고 싶다"고 전했다. 경기 후 클럽하우스 연회장에서 만찬과 시상식이 진행됐다. 김종섭(66사회사업) 총동창회 회장은 "바쁜 일정에도 많은 동문들이 함께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나눔 골프대회를 통해 모교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상식에 참석한 유홍림 총장은 "서울대의 발전은 국가의 발전으로 이어진다"며 동문들의 지속적인 성원을 당부했다.



불암산 등산 트레킹 행사

총동창회가 주최한 등산·트레킹 행사가 지난 6월 12일 불암산에서 개최됐다. 동문들은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 맑은 하늘과 초록빛으로 가득한 산길을 따라 함께 걸으며 건강과 친목을 다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동호(59교육) 동문부터 조유진(22국어교육) 동문까지 약 40여명의 동문이 함께해, 세대 간의 교류의 장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참가자들은 성봉주(84체육교육) 산행대장의 인솔 하에 가벼운 준비운동과 등반 코스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산행을 시작했다. 이날의 등반 코스는 화랑대역에서 출발해 상계 나들이 철쭉동산과 불암산 전망대를 지나 상계역으로 이어지는 불암산 둘레길 구간으로, 총 2시간 30분가량 소요되는 트레킹 코스였다. 비교적 완만하고 경치가 좋은 구간이 중심이 돼 등산 초보자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숲 그늘과 시원한 바람 덕분에 산행 내내 쾌적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다음 총동창회 등산트레킹은 오는 11월 6일 관악산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5월 기부장학금 7억3000만원 돌파

지난 5월 한 달간 관악회에 전달된 기부 금은 총 7억 3115만 5000원이다. 한기학(52농화학) 동문이 지난 5월 14일 총동창회에 5억원의 장학금을 기부했다. 한동문은 "조상 대대로 지켜온 선산이 학교와 나라를 위해 값지게 쓰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윤경(65간호) CM충무병원 행정대표가 1억원을 쾌척했다. 이종영(53기계) 동문도 5000만원을 기부해 누적 1억 300만원을 기록했고, 박상은(55상학) 동문 역시 5000만원을 쾌척했다. 이우명(화학63) 동문

은 누적 2010만원을 채웠다. 꾸준한 기부로 의미 있는 누적을 이룬 동문들도 눈길을 끈다. 김동호(62불문) 동문은 누적 2억 3700만원, 김원기(GLP31) 동문은 3250만원, 김기선(63독문) 동문은 2400만원, 권호진(74토목) 동문은 1511만원, 변종오(77요업) 동문은 600만원을 누적했다. 이기용(68독어교육) 동문은 2550만원, 우희명(GLP37) 동문은 3200만원, 박주미(81치의학) 동문은 860만원을 각각 누적했다. 특히 한기룡(71경영대학원) 동문은 총 300만원의 약정을 모두 이행하며 약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

유홍림총장 초청 조찬포럼



지난 6월 12일 서울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27회 서울대총동창회 조찬포럼은 서울대 종합화 50주년과 내년 개교 80주년을 맞아 학교의 지난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 전략을 동문들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포럼에서 유홍림 총장은 먼저 종합화의 의미를 되짚었다. 1975년 관악캠퍼스 이전을 기점으로 서울대는 단과대 중심 체제에서 종합대학 체제로 전환했고, 이는 정부 재정지원 1위, 기술이전 수입 4배 성장, QS 세계대학순위 국내 1위 등의 성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유총장은 서울대가 수행해야 할 책무로 AI·반도체·기후환경 등 초격차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세계와 지역을 연결하며, 기초학문과 실용학문의 균형을 통해 공공성을 회복하는 역할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융합연구 강화, 글로벌 협력 확대, 구조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대의 공간 전략 역시 주목할 부분이었다. 그는 시흥 스마트캠퍼스, 평창캠퍼스, 학술림 등을 예로 들며, 서울대가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총장은 국가 재정 상황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서울대가 향후 독립적인 재정 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 재정 여건상 국립대 재정 지원 확대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법인화 이후의 서울대는 자체 수익 기반 확대와 외부 기부 및 후원 유치 등을 통해 재정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대는 향후 10년간 2조원 규모의 발전기금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재정 확충은 인재 유치와 글로벌 캠퍼스 운영, 연구 인프라 확장 등에 전략적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유 총장은 "서울대는 하나의 대학이 아니라, 한국 대학 전체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에 대한 높은 기대만큼 자율성과 신뢰의 기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정부에 입성한 동문들



새 정부의 핵심 브레인으로 서울대 동문 다수가 임명됐다. 김민석(82사회) 국회의원위원회 국무총리에 지명되고, 국정 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이한주(75식물) 민주연구원장이 임명됐다. 대통령실에는 위성락(73외교) 국회의원이 안보실장에, 김용범(81경제)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정책실장에, 송기호(81무역) 변호사가 국정상황실장에 임명됐다. 또 이규연(81농학) 전 JTBC 대표가 홍보소통수석으로, 하준경(87경제) 한양대 교수가 경제성장수석, 하정우(97컴퓨터공학) 네이버클라우드 AI 혁신센터장이 AI미래기획수석에, 류덕현(88경제) 중앙대 교수가 재정기획보좌관으로 봉직한다. 차관에 임명된 동문도 5명이다. 이형원(89경제) 통계청장을 기획재정부 1차관에, 임기근(86경영) 조달청장을 2차관에, 박윤주(89외교) 주아세안대 표부 공사를 외교부 1차관에 임명했다. 또 문신학(86경제)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으로, 여한구(88경영) 피터슨국제경제 연구소 선임위원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각각 발탁했다.

회비납부 안내

회비구분			회비
연회비	회원		5만원
	임원	회장	100만원
		부회장	30만원
		이사	10만원
평생회비			50만원(만65세 이상 30만원)

납부계좌 : 농협 301-0252-4434-51 권영걸(서울대미대동창회)
※ 회비납부시 성명·학번·학과를 명시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총동창회비는 별개이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회비입금내역(25.6.16-7.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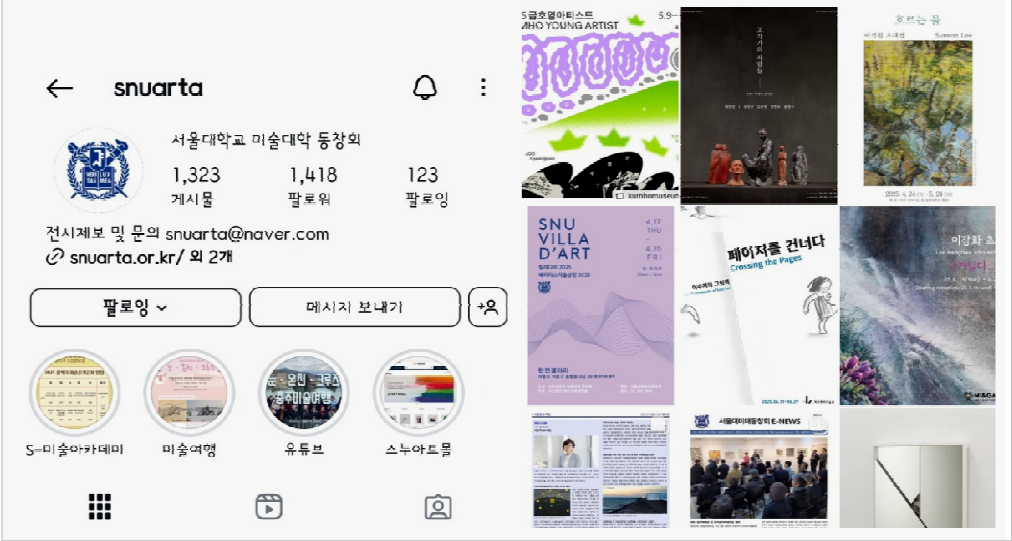
- 회장 회비 권영걸(69응미)
- 부회장회비 황숙현(69응미)
- 이사 회비 양세혁(89조소)
- 일반 회비 강태성(84서양) 김광현(57응미) 한영옥(58회화)
- 평생 회비 김경미(93서양) 노정민(85산미)
- 광고후원금 박 순(87산미/무위도식) 30만원
민수정(82회화) 20만원 정종미(76회화) 20만원

축하기·근조기 배송안내

회원 및 회원가족의 결혼, 상 등 경조사 시 축하기나 근조기를 보내드리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축하기와 근조기는 모든 회원께 무상 제공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나 아직은 동창회 재원부족으로 당사자가 본인인 경우 외에는 요청하시는 회원께 배송비(지정업체 위탁)를 받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청전화: 02-555-1946

소식을 보내주세요~

본회 소식지인 "서울대미대동창회 E-NEWS"는 매월 15일 발행되어 동문 및 관련단체 등 4000여명에게 메일을 통해 전달되며, 휴대폰이나 본회 인스타그램·네이버밴드 등 SNS에서도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문자(010-5235-1946)나 메일(snuarta@naver.com)로 동문들의 전시 및 행사·인사·수상·개업·결혼·부고 등 동정을 보내주시면 소식지에 게재해 드립니다. 또한 홈페이지와 소식지에 비즈코너를 마련해 동문들의 사업체를 소개해 선후배간 도움을 나누고 있으니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동문은 사업체 소개 기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SNS로 직접 소식을 전하세요~

본회는 회원과의 소통을 위하여 네이버밴드·인스타그램 등 SNS계정(명칭/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창회 소식 및 공지사항, 동문동정 등을 실시간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밴드에는 전시, 행사, 애경사를 직접 알리실 수 있습니다. 가입 시에는 회원인증을 위해 ID를 실명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ID예: 김홍도(98동양)

광고후원안내

서울미대동창회 E-NEWS 광고를 통해 기업·단체·개인의 홍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찬해 주시는 광고료는 후원금으로 처리되며 이뉴스 발간 및 본회 사업을 위해 쓰이게 됩니다

- 회 지 명 : 서울대미대동창회 E-NEWS
- 발행방식 : 이메일 발송, SNS업로드(인스타그램, 밴드)
- 광고마감 : 매월 말일
- 발 행 일 : 매월 15일
- 판 형 : A3(국배배판) 297x420mm
- 연락처 및 이메일 : 02-555-1946, snuarta@naver.com

규격	광고료		
	1회	6회	12회
1/6면	10만원	50만원	100만원
1/3면	20만원	100만원	200만원
1/2면	30만원	150만원	300만원
전 면	50만원	250만원	500만원

S-미술아카데미

여름특강 수강생모집

2025 여름특강 미술실기강좌 시간표

월	화	수	목	금	원데이	
기초소묘드로잉 어반드로잉·인물창작 오전 김호준					현대수묵화 풍경·인물·정물 문인화 외 조래원	
태블릿PC 디지털페인팅 기초부터 작품제작까지 이명훈						
프레스코 원데이클래스 Fresco·Secco (석회벽화·템페라) 선우형					8월 2일 (토) 10-17시 (점심휴식 1시간)	
초·중등 영재미술 창의미술 7/22~8/12(4주) 박진하						
프리메인팅 자유창작 유화·아크릴화 조명식						
여백과 묵향의 힐링 사군자 변영혜						
수채화 초·중·고급 박혜령						
오전						
오후						

주최 서울대학교미술대학동창회 주관 (사)에스아트플랫폼 후원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접수기간
강좌별 수시모집

접수방법
문자접수(010-8605-8065) 및 수강료 입금
납부계좌: 농협 301-0252-4434-51 권영걸(서울대미대동창회)

수강기간
7/4(금)~8/29(금) 8주 / 공휴일 휴강(보강 진행)
오전강좌: 10~13시 / 오후강좌: 14~17시
*초·중등 영재미술 7/22~8/12(4주)

강의장소
S-미술아카데미 실기실(종로구 인사동9길16 백악미술관2층)

수강정원
강좌별 15명(신청순 접수, 복수신청 가능)

수강료
강좌별 24만원(8주 기준)
*프레스코 원데이클래스 15만원(재료비 포함)
*초·중등 영재미술 12만원(4주 기준)
*한글규정 홈페이지 참조

강사진 및 아카데미 안내
서울대학교미술대학동창회 홈페이지 참조
snuarta.or.kr (S-미술아카데미)

문의
02-877-8065(평일 10시~17시)

동문갤러리탐방

갤러리 무위도식 박순(87산미)



박순 동문이 운영하는 갤러리 무위도식은 지난 2024년 10월 12일 오픈했다. 박동문은 친한 사람, 좋은 사람, 오랜 인연으로 만날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를 꿈꾸며 개관했다고 밝혔다. 박동문은 “서로의 나이 들어감을 서글프고 아쉽지 않게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고 싶었다”며, “호수에 뜨는 달처럼 아름다운 곳에 재능 있는 예술인들의 작품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더욱 좋겠다는 생각에 갤러리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현재 전이린(86) 동문과 박상철(86) 동문의 전시가 지난 6월 15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점과 선으로 쌓여진 전이린 동문의 추상과, 디지털 펜으로 그려낸 박상철 동문의 사실주의적 작품은 다른 듯 닮은 느낌을 자아낸다.

박순 동문은 대학 졸업 후 동부그룹, 동양그룹, 삼성출판사에서 근무하며

10년간 디자이너로서 커리어를 쌓았다. 그러나 1997년 IMF와 출산 및 육아로 인해 소위 경력단절이 되었다. 이후 잘하는 것 보다 좋아하는 일들을 찾아가는 여정 속에서, 요리에 관심이 생겼다. 단국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석사과정을 졸업하며 이후 우송대, 영동대, 한국호텔전문학교에서 디자인과 요리를 접목시킨 푸드스타일링과 조리과학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다. 오랜 시간 강의를 이어오며 사회적 경제 기업 인큐베이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반 연구 More than Life를 운영하면서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생각은 더욱 확고해졌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기회를 잡지 못한 다재다능한 인재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으며 서로 상생하는 공간을 만들고자 2024년 10월 경기도 안성 용설호수길에 복합 문화공간 갤러리를 시작하게 되었다. 현재는 그림 위주의 전시를 진행하고 있으나,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서로 상생하고 공감하는 문화공간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본회는 이러한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갤러리 무위도식과 MOU를 체결하였다. 이번 체결을 통해, 본회와 갤러리 무위도식은 다양한 전시 및 지역 문화 상생 프로그램을 기획해나갈 기회를 다졌다. 본회는 갤러리B, 지아트갤러리, 아트스페이스 쉼리아, 갤러리 PaL 등 여러 갤러리와 MOU를 맺었다. 또한 작년까지 분당서울대병원 전시장에 공모를 통한 동문 전시를 진행해왔다. 본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갤러리들과의 협약을 통해 동문 전시 기회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갤러리 무위도식

-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용설호수길 195-2
- 금,토 11-5pm
- 예약 문의 : 010-3349-8047

후원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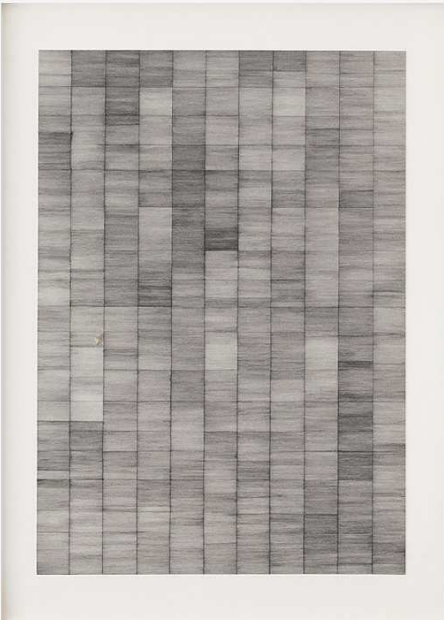
G A L L E R Y

MUWIDOSIK



갤러리 무위도식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용설호수길 195-2
매주 금요일, 토요일 AM 11:00 ~ PM 17:00
예약문의 : 010 3349 8047



전이린

x

박상철

겹
Layers

숨
Breath of Reality



2025.6.15 - 2025.12.15
FRI/SAT. AM 11:00 - PM 17:00

예술원 신입회원선출 및 예술원상수상

이봉열(57회화)·오용길(65회화)



왼쪽부터 오용길, 이봉열 동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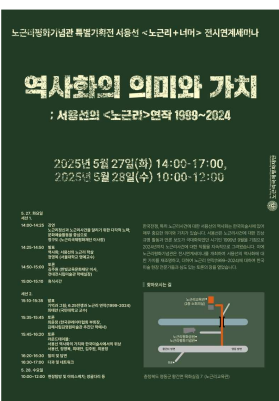
오용길 동문이 2025년도 대한민국예술원 신입회원으로 선출됐다. 또한 이봉열 동문이 예술원상 미술부분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대한민국예술원(회장 신수정·이하 예술원)은 26일 제75차 정기총회 의결을 통해 신입회원 및 예술원상·젊은예술가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대한민국예술원법에 근거

해 1954년 개원한 예술원은 예술창작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예술가를 우대·지원하는 기관으로서 230여 개 예술 관련 기관과 단체의 추천을 받아 문학·미술·음악·연극·영화·무용 등의 분야에서 예술경력 30년 이상인 신입회원을 선출하고 있다. 예술원에 따르면 앞으로 기존회원 75명과 이번 정기총회에서 인준한 신입회원 7명을 포함해 총 82명이 예술원 회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예술원은 1955년부터 매년 230여 개 예술 관련 기관과 단체의 추천을 받아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무용 등 각 분야에서 탁월한 창작 활동으로 예술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예술인에게 예술원상(상금 5000만원)을 시상하고 있다. 또 2022년부터는 젊은 예술가를 발굴해 창작의욕을 고취하고자 만 45세 이하 예술인(음악분야 경우 만 40세 이하)을 대상으로 젊은예술가상(상금 2500만원)도 시상 중이다. 예술원상과 젊은예술가상 시상식은 오는 9월 5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모교 회화과를 졸업한 이동문은 6회의 개인전 및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한 바 있다.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초대작가, 추천작가, 심사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성신여자대학교 객원 교수를 역임했다. 이동문은 모교 회화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검재-오늘의 작가'를 비롯하여 다수의 수상 경력이 있으며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이다.

전시회연계 학술세미나 참여 서용선(75회화)

노근리 평화기념관이 지난 5월 27~28일에 개최한 '노근리+너머' 전시회 연계 학술 세미나에 서용선 동문이 참여했다. 노근리평화기념관은 한국전쟁 발발 75주년을 맞아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지난해 11월 27일부터 서동문의 작품을 전시했으며 전시는 오는 7월 31일까지 열린다. 이번 세미나는 노근리 평화기념관이 '서용선: 노근리+너머'라는 제목의 역사화 전시회와 연계해 미술 분야 전문가 5인을 초빙해 학술발표와 토론회 등으로 꾸민 세미나다. 정영목



서울대 명예교수가 노근리 학살을 소재로 그린 서동문의 역사화에 관한 의미를 설명하고, 최태만 국민대 교수가 6·25전쟁과 노근리 연작(1999-2024)을 주제로 발표를 맡았다. 한편 서동문은 모교 서양화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한 뒤 모교 교수로 재직하다 2008년부터 전업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아르코미술관 대표작가(2016), 이중섭미술상 수상(2014),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 선정(2009) 등의 경력이 있다.

하인두미술상 수상 정연두(88조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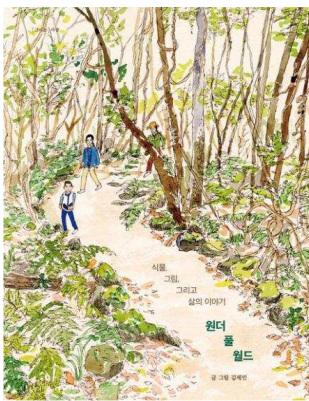
정연두 동문이 제4회 하인두예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아트조선은 지난 5월 30일 "정연두는 시대의 틈을 비추는 이질적 감각의 병치를 통해 동시대 예술의 새로운 서사를 구축해왔다."며 수상 배경을 밝혔다. 하인두예술상은 아트조선이 2022년 제정한 동시대 미술상으로, 한국적 추상미술의 선구자 하인두(1930~1989)의 예술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 만 59세 미만의 한국 작가 중 국내에서 3년 이상 활동한 작가를 대상으로 매년 1인을 선정한다.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0만원과 함께, 2026년 아트조선스페이스 개인전, 파리국제에



술공동체(Cité internationale des arts) 레지던시 참여 기회가 주어진다. 한편 정동문은 모교 조소과를 졸업하고 영국 골드스미스칼리지에서 석사과정을 마쳤다. 국립현대미술과 '2007년 올해의 작가'로 선정됐으며, 베니스비엔날레, 광주비엔날레, 울산시립미술관, 프랑스 MAC VAL, 미국 노턴미술관, 일본 아트타워 미토 등 국내외 주요 기관에서 개인전과 전시에 참여했다.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 리움미술관, 뉴욕현대미술관(MoMA), 도쿄도현대미술관 등 국내외 주요 미술관에 소장돼 있다.

에세이 '원더 풀 월드' 출간 김제민(98서양)

김제민 동문이 지난 5월 20일 에세이 『원더 풀 월드: 식물, 그림, 그리고 삶의 이야기』를 출간했다. 책에는 20여 년간 애정 어린 시선으로 관찰하고, 촬영하고, 그린 풀 이야기가 그의 대표작과 함께 실려있다. 독자는 풀과 함께한 그림 인생이 녹아 있는 24편의 글을 읽으며 엉뚱하고 유쾌한 작가의 상상에 동참하며 풀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경험을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 책은 김동문이 풀을 그리며 자연으로부터 배운 '다양성과 공존'의 가치를 되새기게 한



다. 한편 김동문은 모교 서양화과 및 동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마쳤다. 현재는 전남대 미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도시 속에서 자라는 식물들을 드로잉과 회화, 판화로 유머러스하게 표현하며 이러한 점을 무기로 삼아 소소한 식물들을 소재로 인간 사회에 일침을 가하는 가벼우면서도 심오한 작품을 추구한다. 소마드로잉센터, 아트팩토리, 갤러리 버튼 등에서 개인전을 열었고 다수의 단체전에 참가했다.

수필 '다듬이 소리를 그리며' 출간 최국강(62응미)

최국강 동문이 지난 5월 수필 『다듬이 소리를 그리며』를 출간했다. 최동문은 '카테지에서 생기는 일', '다듬이 소리를 그리며', '일상 속의 예술', '어머니의 선물', '마지막 이사'라는 주제로 크게 5가지의 카테고리를 나누어 캐나다로 이주했을 당시와 캐나다에서의 생활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적었다. 그는 "어쩌면 희미한 기억 속으로 사라져버릴 수도 있었던 이야기들을 글을 써보라고 권유한 지인 덕분에 한 권의 책으로 묶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히며 수필집을 내면서 느낀 감회를 밝혔다. 한편 모교 응용미술과를 졸



업한 최동문은 1971년 캐나다로 이주한 뒤 현재까지 작가로서 활동 중이다. 한인미술가협회전(1992-2022), International Futniture Show in Toronto(1995-2000), 캐나다-미시건 한인미술축제 초대전(1996), The New World Millennium "We"(2000) 등을 포함한 다수의 전시에 참여했다. 1980년부터 84년까지 듀람 세종한글학교 교사 및 교장, 2008년부터 2009년까지 한인미술가협회 사무장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Carving A Path Of Their Own』, 『장인의 길』이 있다.

세계는 세계화한다 엄태정(58조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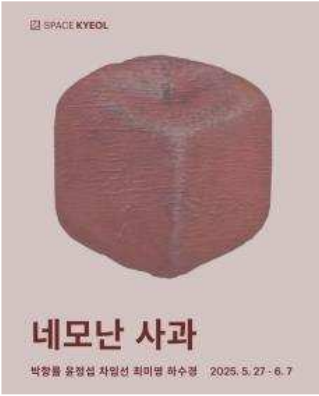
엄태정 동문의 개인전 '세계는 세계화한다'가 지난 6월 18일부터 오는 8월 2일까지 아라리오갤러리 서울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는 1970년대 작품부터 지금까지 잘 소개되지 않았던 엄동문의 조각 작품과 신작 조각, 회화, 드로잉 등 27 점이 소개된다. 그의 조각은 단순한 형태나 물질의 조형을 넘어, 세계와 진리를 열어 보이는 하나의 예술적 방식으로 제시되며, 존재의 본질과 아름다움, 그리고 '머문다'는 의미를 깊이 사유하게 한다. 조각과 긴밀히 연계된 그의 드로잉과 회화는 공간성과 시간성을 내포하며, 반복되는 비움과 채움의



수행적·명상적 과정을 반영한다. 특히 이번 전시의 신작 평면 작업에는 그가 깊이 존경해 온 조각가 콘스탄틴 브랑쿠시의 대표작 '무한주'를 연상시키는 조형적 요소들이 담겨 있어 조각과 회화, 시간과 사유가 교차하는 지점을 흥미롭게 제시한다. 한편 모교 조소과를 졸업한 엄동문은 영국 세인트 마틴스에서 수학하였으며, 독일 베를린 예술 대학 연구교수를 거쳐 모교 조소과 교수를 역임했다.

네모난 사과 박항률(70회화) 외 4인

다섯 명의 중견 회화작가의 그룹전시 '네모난 사과'가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7일까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스페이스 곁에서 열렸다. 참여 작가들은 박항률, 윤정섭, 차임선, 최미영, 하수경 총 5인으로 모두 모교 미술대학 70학번 동기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서로 전공도, 삶의 궤적도 다르지만 회화라는 공통점으로 모이게 됐다. 전시를 열며 이들 5인의 작가들은 프랑스 화가 '폴 세잔'이 집요하게 추구하며 관조했던 견고한 사과가 19세기의 급변하는 회화 형식



속에서 찾아낸 표현 양식의 결정체였고, 뒤를 이은 수많은 화가들이 새로운 표현 양식과 견해들을 드러내며 오늘날에 이르렀으며 5인의 작가들도 이와 같이 변화를 꾀하는 시대 속에서 솔직한 표현을 통해 자아실현의 한 페이지를 채워 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동문은 모교 서양화과, 윤동문은 모교 조소과, 차동문은 모교 응용미술과, 최동문은 모교 시각디자인과, 하동문은 모교 동양화과를 졸업했다.

식물의 시간-나의 정원 2025 최명애(70회화)

최명애 동문의 개인전 '식물의 시간-나의 정원 2025'가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28일까지 용인 갤러리위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신작 'My Garden' 시리즈를 통해 푸른 식물로 가득 찬, 최동문이 오래도록 가꾼 내면의 정원을 따라 걷는 산책처럼 구성됐다. 그의 작품은 식물과 풍경의 구체적인 형상을 그려냈지만 배열과 표현은 추상에 가깝다. 단순히 자연의 순간을 묘사하는 것이 아닌, 자신에게 축적된 기억과 감정들을 풀어냈기 때문이다. 갤러리위 관계자는 "작가는 사라지되 다시 만나는 자연의 질서를 '슬픔 없는 생명의 순환'이라



했다"며 "그의 회화는 그 순환이 계속되는 마음의 정원이자 되풀이되는 삶의 진실을 은유하는 공간이다. 작가의 회화적 전개를 통해 자연이 품은 원리이자 우리 삶이 지닌 고요한 진실을 응시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최동문은 모교 서양화 및 미학을 전공한 뒤 하와이대학교 미술대학원에서 회화를 전공했다. 화랑미술제, Kiaf Seoul 등 다수의 아트페어에 초청되며 주목을 받고 있다.

시간의 조각 이영훈(81회화)·민수정(82회화)

이영훈 동문과 민수정 동문의 2인전 '시간의 조각'이 오는 7월 24일부터 8월 5일까지 아트스페이스퀄리아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모교 동창회와 아트스페이스퀄리아의 후원으로 기획되었다. 이동문은 어떤 경험에 대한 순간적인 인상을 시적으로 치환하여 작업한다. 이를테면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고개를 들어 보는 날선 햇빛,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서 위층에 발을 내딛는 감각, 에베레스트의 눈발 날리는 꼭대기에 잠수정을 타고 도착하는 장면들이 그



것이다. 민동문은 '연결'을 키워드 삼아서 작품을 제작한다. 서로 다른 시간, 사라지는 존재들, 자연과 인간, 아날로그와 디지털 등의 서로 다른 세계를 그의 몸을 통해 하나의 화면에 접합한다. 한편 이동문은 모교 회화과, 미술이론 석사, 서양화전공 미술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는 S-아카데미 디지털페인팅 강사로 활동 중이다. 모교 회화과를 졸업한 민동문은 3회의 개인전 및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해왔다.

이영훈 민수정 시간의 조각

2025.7.24 Thu
2025.8.5 Tue

아트스페이스 퀄리아
Art Space Qualia

서울 종로구 평창11길 41
02-379-4648

후원광고



한울회 제49회 정기전

한울회 제49회 정기전이 지난 6월 18일부터 23일까지 인사동 마루아트센터 특별관에서 열렸다. 대작전(大作展)으로 진행된 이번 전시에는 한울회의 76명의 작가가 참여했으며, 전시는 출품 작가 각자의 작품세계를 선보이는 기회의 장이 되었다. 오프닝 행사에서 박혜령 회장(74회화)은 "한울회는 선 후배가 서로 이끌어주고 밀어주며 함께 성장하는 동문 공동체이자 큰 울타

리로서, 아름다운 동행이다. 일년 중 가장 큰 행사인 정기전에 동문들의 고뇌와 예술혼이 깃든 작품들을 선보이게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동문들과 함께하는 전시를 통해 서로의 예술세계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배워가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인사말로 전시를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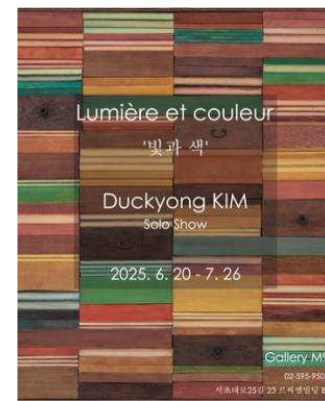
행사에는 출품작가들과 여러 내외귀빈이 함께했으며 본회 권영걸 회장과 모교 정의철 학장의 축사에 이어 신입회원 소개, 연도별 회원들의 소개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어졌다. 권회장은 "한울회가 아카데미즘의 전통임을 밝히며 80년간 이 나라 미술교육의 모본이 되어온 우리대학의 긍지가 보인다"고 이번 전시에 대한 축하의 말을 전했다.

한울회는 모교 출신 여성작가들의 모임으로 1950년대 학번부터 2000년대 학번까지 모든 전공을 아울러 원로, 중진, 신진 작가들이 포함되어있다. 1980년 관훈미술관에서 첫 정기전을 시작으로 해마다 정기적으로 전시를 열어왔다. 또한 서울을 비롯하여 부산, 제주, 가평, 인제, LA, 파리, 뉴델리, 도쿄 등에서 전시를 열었고 팬데믹 기간에는 유튜브에서 온라인 전시를 열기도 했다. 회원들과 함께 꾸준한 활동을 이어온 한울회는 다가오는 2026년에 5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한울회는 역사를 이어감과 동시에 한울회의 미래와 함께할 새로운 여성 동문들을 항상 환영한다고 전했다.

모교 여성동문들의 예술세계가 집약된 이번 정기전은 세대를 넘어서는 창의적 시선과 시대적 감성을 관람객들에게 선사했다.

빛과 색 김덕용(81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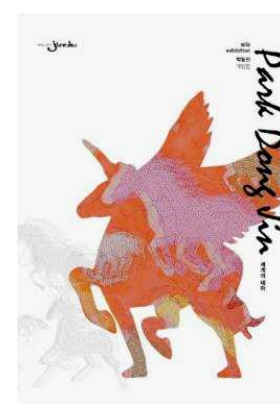
김덕용 동문의 개인전 '빛과 색'이 지난 6월 20일부터 오는 7월 27일까지 서울 서초대로에 위치한 갤러리 엠나인에서 열린다. 김동문은 그동안 인연과 그리움을 담은 이야기를 목판에 자개와 혼합재료로 한국적인 정서로 표현하는 작업을 해왔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24년 프랑스의 저명한 언론인 르몽드의 4월호 문학 부문에 수록된 김동문의 '결-순환' 작품의 연장선으로 개최됐다. 갤러리 엠나인 큐레이터 김치현은 그의 작품에 대해 "김덕용의 작품은 차분히



진실되게 쓰인 편지처럼 작가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으며 인내와 그리움을 절제된 방식으로 표현해 시대가 지나도 흐려지지 않을 향기를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모교 회화과 및 동 대학원 동양화과를 졸업한 김동문은 국립현대미술관, 박수근 미술관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있다. 또한 세계적인 경매회사 크리스티즈(Christie's)에서 주목하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작가이기도 하다.

이어달리기 박동진(82회화)

박동진 동문의 개인전 '이어달리기'가 지난 6월 6일부터 29일까지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갤러리 이레에서 열렸다. 전시는 박동문의 회화 세계가 지닌 역동성과 실험정신, 그리고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은 전시로 회화적 언어와 사유의 결합을 통해 우리 시대의 '정주하지 못하는 삶'을 조명한다. 화면에 해체된 시점과 겹겹이 쌓인 추상적 형상들은 미래주의의 역동성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동양화 서양, 과거와 현재를 가로지르는 감성적 긴장을 유도



한다. 한편 박동문은 모교 서양화과를 졸업한 이후 뉴욕, LA, 이스탄불, 상하이 등 세계 주요 도시에서 45회의 개인전을 열었고 350여 회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중앙미술대전 대상, 공산미술제 특선, 오늘의 작가상 등 굵직한 수상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춘천교육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의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인천문화재단, 주세네갈 한국대사관 등 여러 기관에 소장돼 있다.

불가피한 상황과 피치 못할 사정들 정연두(88조소)

정연두 동문의 개인전 '불가피한 상황과 피치 못할 사정들'이 지난 4월 25일부터 오는 7월 20일까지 부산 국제갤러리에서 열린다. 정동문은 그동안 이질적인 대상들을 횡단하고 접합하며 시대의 틈을 드러내고 새로운 감각의 짜임을 만드는 작업을 해왔다. 국제갤러리에서 2008년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개인전에서 그는 블루스 음악과 발효의 리듬을 교차하면서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살아내는 유머와 염원의 태도를 그만의 독특한 시각으로 풀어낸다. 한편 모교 조소과를 졸업하고 골드스미스 대학교 미술 석사학위를 취득한 정동



문은 현재 서울에서 활동 중이다. 그는 퍼포먼스가 직·간접적으로 등장하는 사진, 영상, 설치 등 미디어 작업에 주력해 왔다. 국립현대미술관의 '2007년 올해의 작가'로 선정된 바 있으며, 주요 개인전으로는 국립현대미술관(2023), 울산시립미술관(2022), 미국 웨스트팜비치 노턴미술관(2017), 아트선재센터(2017), 프랑스 비트리쉬르센 맥발미술관(2015), 일본 아트 타워 미토(2014), 플라토미술관(2014), 중국 상하이 K11 아트 스페이스(2013), 뉴욕 PERFORMA 09(2009) 등이 있다.

UNIVERSE 성석진(90공예)

성석진 동문의 개인전 'UNIVERSE'가 지난 6월 4일부터 15일까지 세종대학교 세종뮤지엄갤러리 2관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에서는 전통 백자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달항아리', 'UNIVERSE' 시리즈와 약 50여 점의 도자 작품이 선보여졌다. 특히 'UNIVERSE' 시리즈는 성동문이 여주 작업실 앞마당에서 본 별빛과 자연에서 받은 영감을 바탕으로 제작됐으며 백유, 재유, 수금 등 다양한 유약 기법을 통해 우주의 깊이와 시간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담아냈다. 한편 성동문



은 모교 도예과 및 일본 도쿄예술대학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전통 도자기의 단아한 형태에서 영감을 받아 현대적인 조형 세계를 구축해왔다. 대표 기법인 '업다지'를 통해 제작된 비대칭성과 균열은 도자기의 불완전함 속에 깃든 생명력과 조화를 표현한다. 그의 작품은 인천국제공항, 국립고궁박물관, 청와대 사랑채 등 주요 공공기관에 상설 전시돼 있으며, 국내외 다수의 전시를 통해 한국 도자의 새로운 지평을 제시해왔다.

한걸음 다가서면 바꿀 수 있어요 김정아(90서양)

김정아 동문의 개인전 '한걸음 다가서면 바꿀 수 있어요'가 지난 6월 19일부터 7월 15일까지 두손갤러리에서 열렸다. 김동문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무심코 버려지는 쓰레기가 결국 어디로 가는지를 질문하며, 그 문제를 작업의 재료이자 주제로 삼아왔다.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땅속에 묻히며,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연을 침식해가는 쓰레기들을 작가는 조형 언어로 재해석하며 관객들에게 우리가 외면해 온 현실을 마주할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한지 액자 위에 쓰레기를 소재로 그린 '꽃꿈', '꽃보다 아름답다',



바다 쓰레기의 초상화를 담아낸 'The Portrait of a Fairy', 그리고 바다 쓰레기의 존재 유무에 따라 변화하는 렌티큘러 작품 '한걸음 다가서면 바꿀 수 있어요' 연작을 선보였다. 한편 모교 서양화와 졸업 후 동대학원에서 판화를 전공한 김동문은 2011년부터 해양쓰레기를 주제로 바다 환경의 심각성을 알리는 예술적 실천을 시작했다. 현재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오션의 예술감독으로 활동하며, 창작과 전시를 통해 바다를 위한 실천을 이끌어내고자 노력하고있다.

시그널 김태진(90서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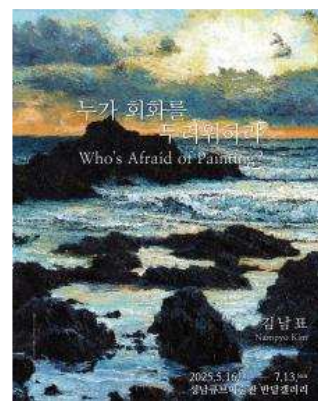
김태진 동문의 개인전 '시그널'이 지난 5월 9일부터 31일까지 서울 연희동에 위치한 갤러리 호호에서 열렸다. 이번 개인전은 김동문의 드로잉 신작 20여 점으로 구성되었다. 그의 드로잉은 고정된 형태를 지우고 감각의 얼룩과 흔적을 따라 회화의 본질을 탐색하는 작업이다. 이번 전시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영상, 설치, 뉴미디어 등 구조적이고 개념 중심의 작업을 이어오던 김동문이 다시 손으로 회귀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 작업에 대해 "영상이나 설치 작



업은 구조적이지만, 드로잉은 더 본능적인 층위에서 출발한다"며 "손이 닿고, 색이 번지고, 물성이 말라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저에게 새로운 경험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동문은 모교 서양화와 학사,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Avalanche(2003), 의지를 가진 기억(2005), 기록에 관한 기억(2006) 등 다수의 개인전과 단체전을 가졌으며 국민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부 교수, 사단법인 한국영상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누가 회화를 두려워하라 김남표(91서양)

김남표 동문의 개인전 '누가 회화를 두려워하라'가 지난 5월 16일부터 7월 13일까지 성남큐브미술관 반달갤러리에서 열렸다. 김동문은 "회화(Painting)에서 숭고(Sublime)는 영원해야 한다."는 회화적 지론을 바탕으로 작업을 지속하는 작가다. 그는 회화라는 미술의 고전적 매체에 천착하며, 캔버스 위의 구도자 같은 태도로 회화의 본질에 다가서기 위한 '미술을 위한 미술'에 집중해왔다. 이번 전시는 회화의 본질에 도달하기 위한 화가의 여정에서 정신적 숭고미를 추구하는 것은 구시대적 관념이나 과거의 유산이 아닌 동시대 미술에서도 여



전히 유효한 가치라는 것을 미술사의 가장 오래된 화두를 투영하여 바라보기 위해 기획됐다. 한편 모교 서양화와 및 동대학원을 졸업한 김동문은 Gumgill(2020), CASTLE(2021), 회화적 묵상(2021) 등의 개인전 및 단체전에 참여했다. 서울시립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성남문화재단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으며 창작예술협회공모전 금상, 전국 대학미전 대상,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전시 기획 부문에 선정된 바 있다.

펄의 바다 정희우(93동양)

정희우 동문의 개인전 '펄의 바다'가 지난 6월12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서울 성북구 대사관로에 위치한 우리옛돌박물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정동문의 작품을 통해 서울의 익숙한 거리와 풍경 속에 숨어 있는 감정과 기억을 되짚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정동문은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도시의 겉과 속에 대한 관심을 작품으로 표현해 왔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에 걸친 '강남대로' 풍경의 기록과 재현은 그의 집요한 노력의 결과물이었다. 강남대로의 기록이 도시의 겉에 대한 것이었다면 도시의 바닥



에 그려진 각종 기호들의 재현은 도시의 속에 대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전시 '펄의 바다'에서는 성북동을 비롯하여 종로, 강남 등 우리가 일상 속에서 스쳐 지나온 서울의 장소들을 만나볼 수 있다. 한편 모교 동양화과를 졸업한 정동문은 캘리포니아 예술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모교 미술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999년 개인전을 시작으로 다수의 개인전 및 단체전을 진행했다. 2008년부터 도시 기록 작업을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활발하게 활동중이다.

몸 꽃 Blooming Made 허보리(99서양)

허보리 동문의 개인전 '몸 꽃 Blooming Made'이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27일까지 갤러리 플래닛에서 열렸다. 허동문은 그동안 일상의 사소한 장면들을 통해 그 안에 담긴 시간과 감정을 시각적으로 표현 해왔다. 이번 전시는 생존과 돌봄, 노동과 존재의 흔적을 식물의 형상에 빚대어 표현한 신작들로 구성됐다. 식물 추상 시리즈인 <Little Flower>와 <Tree Abstract>를 비롯해, 입체 작업으로 확장된 <하얀숲>, <Blooming> 시리즈가 대표적이다. 허동문은 삶



의 흔적이 스민 천과 화면 가득한 붓질을 통해 몸의 기억이 꽃으로 피어나는 순간을 포착했다. 한편 허동문은 모교 서양화와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갤러리 플래닛, Bol Gallery(싱가포르), 통인화랑, 갤러리 나우, 가나아트파크 등에서 18회의 개인전을 개최했다. 또한 서울대학교 미술관, 이화익갤러리, 롯데 애비뉴엘, 유아트스페이스, OCI미술관, 양평군립미술관 등에서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이광춘 개인전 이광춘(석00동양)

이광춘 동문의 개인전이 지난 6월 18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위치한 더스타갤러리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에 선보여진 작품들은 대부분 20-30년 전 작업했던 구작들로 구성되었다. 이동문은 작업을 진행할 당시 함께 진행하고 있던 다른 시리즈 작품들과는 다른 맥락을 가진 이 작업들이 이야기의 진행을 막는다고 생각해 발표를 미뤄두었으나 작품들이 이대로 잊혀지거나 외롭게 남겨지는 것만 같아 이번 전시에서 작품들을 전시하게 되었다



고 밝혔다. 한편 이동문은 중국 노신미술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모교 동양화과에서 석사학위를 마친 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33회의 개인전과 190여회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서울미협 부이사장 및 한국미협 축제위원장을 역임했으며 북경만과화원과 중국흑룡강화원의 작가로 활동했다. 현재는 경기대학교 예술대학 교수로 재직중이다.

